철강산업 기지개 켠다

SOC건설 확대·조선 건조량 증대 힘입어

광양제철 4고로 年 생산 430만t으로 확장

지난해 말부터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던 대표 소재산업 철강산업이 뜨거운 여름철을 기점으로 하반기부터 생산, 소비 등 모든 측면에서 기지개를 켤 전망이다.

1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한국철강협회는 최근 내놓은 '하반기 철강재 수급전망' 보고서에서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 등 긍정적 시황에 힘입어 하반기 조강 생산량이 2천557만6천t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반기 조강 생산량 전망치는 상반기(2천335만4천t)보다 200만t 이상 늘어난 것일 뿐 아니라 작년 동기대비 감소폭도 1.7%로, 상반기 감소폭(15.4%)에 비하면 급격하게 축소된 것이다.

특히 전기로 조강 생산량은 1천194만3천t으로 상반기(1천2만7천t)보다 190만t 이상 증가하는 것은 물론, 작년 동기대비로도 11.5% 늘어날 것으로 협회는 내다봤다.

조선 건조량 증대 등으로 중후판 소비도 상반기보다 140만t 이상 불어난 648만t에 달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 감소율이 상반기 28.6%에서 5.4%로 급감하고, 상반기 철강업계의 최대 골칫거리였던 냉연강판도 143만t의 수요가 발생해 감소율이 9.4%(상반기 34.9%)로 축소될 것으로 협회는 전망했다.

이밖에 아연도금강판, 열연강판 등도 일제히 소비 감소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철강협회의 예상이다.

철강업체들이 건설,보수 중이던 설비도 하반기 속속 가동에 들어간다.

동부제철이 지난 1일 당진에 전기로를 갖춘 열연공장 설비를 완공한데 이어 포스코가 오는 21~22일께 정준양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감산을 위해 조기 보수에 들어갔던 광양제철소 4고로의 화입(火入)식을 갖고 재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광양 4고로는 보수와 함께 연산 310만t이던 생산능력이 430만t으로 확장된다.

이어 동국제강도 오는 10월 하순께 연산 150만t 규모의 당진 후판공장을 완공해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생산과 소비가 풀리면서 영업실적 역시 2분기를 저점으로 확연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합뉴스

"예쁜 다리 퀸은 바로 나"

용인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에서 지난 11일 세계 1위 제모 브랜드 비트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캐리비안베이 방문객을 대상으로 '예쁜 다리 예쁜 팔 선발대회'를 개최, 입상자들이 아름다운 각선미를 자랑하고 있다. 비트는 오는 18일에도 같은 행사를 한다. /연합뉴스

디도스 손상 PC 고쳐드립니다

KT 무료 서비스

KT가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으로 손상된 PC를 무료로 수리해 준다. KT 정보기술(IT) 봉사단체인 'IT 서포터즈'에 따르면 지난 7일 이후 디도스 공격으로 부팅이 안되거나 파일이 손상되는 등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PC를 무료로 고쳐준다.

IT 서포터즈는 손상된 PC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된 PC가 웹상에서 재활성화될 우려가 있는데다 백신을 설치하지 않은 '좀비 PC'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돼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디도스 공격으로 IT 서포터즈에 수리가 의뢰된 건수는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10여대에 이르고 있으며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디도스 공격으로 PC 손상을 입은 시민은 KT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한국정보보호진흥원(118)에 전화하면 해당 지역 'IT 서포터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KT는 이번 디도스 공격 이후 670만명의 자사 초고속인터넷 고객 전원에게 백신 업데이트를 권고하는 내용의 팝업메세지를 공지하고, 8천여명의 현장직원이 직접 출동해 악성코드 치료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광주은행서도 주택연금 판매

주택금융공사와 협약

13일부터는 광주은행에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와 광주은행에 따르면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3일부터 131개 광주은행 영업점 창구에서도 주택연금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광주·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과 농협중앙회 등 8곳으로 늘게 됐다.

주택연금은 60세이상의 노인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주택금융공사 광주전남지사(062-370-5700)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고 광주은행 등 이들 금융기관의 지점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주간 증시 포커스

실적시즌 주가 변동성 클 듯

하반기 실적 모멘텀에 집중

이번 주 미국증시는 실적시즌의 한가운데로 뛰어들게 된다. 골드만삭스와 인텔(이상 14일, 현지시각), 텍사스인스트루먼트(15일), IBM, JP모건(16일) 등 금융권과 IT, 제조업 등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실적발표가 연이어 예정돼 있다. 지난주에 스타트를 끊었던 알코아가 보여준 기대이상의 실적을 이들 기업들도 이어갈 수 있을지, 하반기 전망이 2분기의 모멘텀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에 따라서 이번 주 미국증시는 등락을 하는 등 변동성이 예상된다.

지난주 국내증시는 KOSPI지수가 0.6% 상승하면서 주간 기준으로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7월 들어서도 상승률을 2.8%까지 끌어올리며 장중 기준으로는 연중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물론 일등 공신은 삼성전자다. 지난주초 삼성전자가 2분기 예상실적을 깜짝 발표하면서 한 주일 동안 7.3% 급등한 것이 지수를 박스권의 상단부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

다만 시장흐름을 보면 주초의 호재에 시장이 반색했던 것에 비해 주 중반 이후 사흘 동안의 모습은 경계심 또한 만만치 않음을 보여줬다. 특히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의 주역으로 등장한 IT기업들의 경우 이미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대돼 왔고, 이로 인해 주가 또한 최근에 급등했다는 점이 마음 한 구석에 부담으로 자리잡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하반기 반도체 및 LCD가격 추이라든지 수출기업들의 환율 여건이 상반기보다 계속해서 좋아질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의 확신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을 것인지가 IT주들의 실적발표를 지켜보는 핵심이다.

시가총액비중이 높은 대형주 가운데 은행주가 그나마 실적 모멘텀 대비 주가의 선반영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제한된 종목만으로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수급 또한 여전히 외국인에만 의존하는 절름발이 형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수의 탄력적인 레벨-업을 기대하기가 쉽지않은 상황이다.

국내 증시도 이번 주에는 포스코(13일), LG디스플레이(16일), LG화학(16일) 등의 실적발표를 기점으로 실적시즌이 개막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이어가기보다는 당분간 등락장세의 연출에 보다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공격적인 시장대응에 나서는 시점은 조금 뒤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하반기 실적모멘텀을 겨냥한다면 은행주 등 내수주 중심의 선별적 대응이 여전히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박종모 굿모닝신한증권 광주지점장